

원주의 건물과 문서

감영의 문 → 건물의 시간 → 박물관의 기록

강원감영의 공간과 복원 이력을 읽고 원주역사박물관의 문서로 이어갑니다. 원주 읽을거리 가운데 건물과 기록을 함께 살필 세 편을 모았습니다.

세 편을 읽는 순서

01 장소 읽기 · 약 4분

강원감영의 세 문, 누가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포정루에서 선화당으로 이어지는 문을 따라, 관찰사의 집무실과 문서를 다루던 공간을 함께 읽습니다.

02 문화정보 읽기 · 약 4분

강원감영을 한 해의 건물로 읽지 않는 법

감영이 설치된 때, 건물이 다시 세워진 때,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진 때를 나누면 공간의 이력이 보입니다.

03 문화정보 읽기 · 약 4분

원주역사박물관에서 만나는 두 가지 시간

역사실의 시대 순서와 민속생활실의 사계절을 비교하면, 지역의 과거를 정리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 보입니다.

3편 · 관찰 질문 9개 · 기록지 1쪽

사진과 상세 해설은 원문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글은 읽는 순서로 묶었습니다. 방문을 계획할 때에는 각 장소의 관람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09-09 인쇄본. 이 파일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운영 안내는 각 글의 자료 확인일 기준이며, 방문 전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01 / 장소 읽기 · 약 4분

강원감영의 세 문, 누가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포정루에서 선화당으로 이어지는 문을 따라, 관찰사의 집무실과 문서를 다루던 공간을 함께 읽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 단락 끝 번호는 뒤의 원문 목록과 연결됩니다.

집무실에 닿기 전, 세 번의 경계

강원감영 안내도에서는 선화당보다 먼저 문 세 개를 찾아보세요. 포정루, 중삼문, 내삼문이 차례로 놓입니다.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중삼문을 방문자가 신원과 방문 목적을 다시 밝히던 곳, 내삼문을 관찰사를 만나기 전 마지막 확인을 거치는 문으로 설명합니다. 길이 곧게 이어져 있어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통과하는 공간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종이에 세 문을 네모로 그리고 그 사이에 화살표를 넣어보면, 안내도를 볼 때 놓쳤던 질문이 생깁니다. 누구를 만나려는 사람인지, 어떤 일로 들어오는지에 따라 이 문들의 의미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문 이름을 외우는 대신 통과할 때 요구받았던 절차를 함께 적어보세요. [1]

한 건물에서 도 전체를 다루다

선화당은 강원도 관찰사의 집무실입니다. 박물관 해설에는 행정과 조세, 민원, 군사훈련, 재판을 총괄하는 업무가 제시됩니다. 관찰사는 원주 한 고을의 일만 맡은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강원감영이라는 이름을 오늘의 원주시청과 곧바로 겹쳐 읽기보다, 여러 지역의 일을 모아 다루던 관청이라는 범위를 먼저 기억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큰 마당이나 건물의 크기만이 권한을 나타냈을까요? 앞에서 지나온 문, 집무실로 이어지는 거리, 일을 보조하던 공간까지 함께 놓고 보면 행정기관의 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한 건물을 자세히 본 뒤에는 그 건물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1] [2]

관찰사 뒤에 있던 문서와 사람들

박물관은 감영의 실무를 맡은 영리와 관찰사를 보좌한 여러 관원을 따로 소개합니다. 건물을 읽을 때도 주인공 한 사람에게만 시선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책방지의 해설에는 도서뿐 아니라 각 지역의 인구·세금·날씨 보고와 소송 관계 문서를 보관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서점과 같은 뜻으로 책방을 읽으면 이 기능을 놓치기 쉽습니다.

지역에서 올라온 보고가 모이고 검토되는 곳을 생각하면 원주는 여러 고을과 이어진 행정의 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문서를 운반한 사람, 내용을 적은 사람, 판단한 사람은 서로 다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안내도에서 집무실과 문서 보관 공간을 나란히 표시해 보세요. [1] [2]

문을 그린 뒤, 빠진 공간을 찾기

이번 읽기에서는 예쁜 건물 세 채를 골라 그리기보다 경계와 일을 함께 메모해 보세요. 첫 줄에는 문을 통과하는 순서, 둘째 줄에는 집무·생활·문서 보관처럼 확인한 기능을 씁니다. 어느 선이 공식 안내도에서 확인되고 어느 연결이 자신의 생각인지 구분하면 작은 그림도 유용한 독서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정루만 남은 사진을 보았다고 상상해 봅니다. 그 한 장에서 감영 전체의 업무를 얼마나 짐작할 수 있을까요? 눈에 잘 들어오는 문루와 그 뒤에서 이루어진 일 사이의 거리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다음에는 건물의 나이를 묻는 대신, 오늘의 강원감영에 옛 건물과 복원된 부분이 어떻게 함께 있는지를 읽어보세요.

함께 생각해 보기

1. 포정루·중삼문·내삼문 사이에서 방문자의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 책방을 오늘의 서점과 다르게 읽게 해 준 자료는 무엇인가요?
3. 집무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영의 업무를 한 가지 골라보세요.

이 글에서 남기고 싶은 것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나의 질문을 적어보세요. 다시 찾아볼 자료의 번호도 함께 남깁니다.

02 / 문화정보 읽기 · 약 4분

강원감영을 한 해의 건물로 읽지 않는 법

감영이 설치된 때, 건물이 다시 세워진 때,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진 때를 나누면 공간의 이력이 보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 단락 끝 번호는 뒤의 원문 목록과 연결됩니다.

설치 연도와 눈앞의 건물 연도

강원감영의 설명에서 자주 만나는 숫자는 1395년입니다.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이때 설치되어 1895년까지 지방 행정을 맡았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감영의 시작을 알려 주는 연도가 그 안의 모든 목재와 지붕이 만들어진 연도는 아닙니다. 관청이라는 제도의 시간과 건물이라는 물질의 시간은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의 선화당 보물 지정 예고 자료는 1667년 중건 이후 주요 목조 가구의 원형을 유지해 온 점을 설명합니다. 한 장소에 놓인 두 숫자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능이 이어지는 동안 건물은 다시 세워지고 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연표에는 '설치'와 '중건'을 다른 색으로 써보세요. [2] [3]

땅속에는 이전 관청의 자리가 남았다

원주시의 강원감영지 안내에는 2000년 발굴에서 중삼문지, 내삼문지, 공방고지, 보도와 담장지 등이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감영 이전 원주목 관아의 건물지 등도 남아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의 건물 배치만으로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 시기의 흔적이 겹쳐 있는 유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터'라는 말은 막연히 비어 있는 땅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사로 확인한 건물의 자리와 길, 담장의 흔적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안내도에 그려진 선을 볼 때 그것이 지상 건물인지, 발굴된 기초인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세운 부분인지 물어보면 공간을 훨씬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4]

복원 완료는 모든 것이 새것이라는 뜻일까

박물관의 현행 소개는 강원감영의 복원이 2018년에 완료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사업의 완료 시점과 각 건물의 이력을 함께 두어야 합니다. 오래 남은 선화당의 부재, 지하에서 확인한 흔적, 다시 구성한 공간을 모두 하나의 연도로 묶으면 오히려 복원이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선화당 지정 예고 자료가 강조한 것도 도시가 달라지는 동안 같은 위치에서 전해진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건물을 보존한다는 일에는 모양뿐 아니라 자리의 연속성을 지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원된 장소를 읽는 좋은 질문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양자택일보다 '무엇이 남았고, 무엇을 근거로 손보았는가'에 가깝습니다.

[2] [3]

네 칸의 연표를 만들어보기

한 장의 기록을 설치·중건·발굴·복원 네 칸으로 나누어보세요. 읽은 자료에서 연도 하나와 그때 일어난 동사 하나를 골라 각 칸에 넣습니다. 같은 연도가 여러 문서에서 다르게 설명된다면 성급하게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어떤 건물, 어떤 공정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강원감영' 전체와 '선화당' 한 동은 같은 단위가 아닙니다.

이 방법은 다른 오래된 건물을 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다는 사실, 원래 자리에 있다는 사실, 당시 재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나누면 건물의 이야기가 더 풍부해집니다. 감영을 가장 오래된 날짜 하나로 기억하기보다, 쓰임과 수리가 이어진 장소로 기억해 보세요.

함께 생각해 보기

1. 1395년과 1667년은 각각 무엇의 시점을 말하나요?
2. 발굴로 확인한 흔적과 지상 건물을 안내도에서 구분할 수 있나요?
3. 복원 연도를 적을 때 함께 남겨야 할 동사는 무엇인가요?

이 글에서 남기고 싶은 것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나의 질문을 적어보세요. 다시 찾아볼 자료의 번호도 함께 남깁니다.

03 / 문화정보 읽기 · 약 4분

원주역사박물관에서 만나는 두 가지 시간

역사실의 시대 순서와 민속생활실의 사계절을 비교하면, 지역의 과거를 정리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 보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 단락 끝 번호는 뒤의 원문 목록과 연결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시간

원주시역사박물관은 역사실에서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원주의 유적과 유물을 다룬다고 소개합니다. 남한강·섬강 주변의 발견 자료, 법천리 삼국시대 유적, 고려의 절터와 조선의 문서가 한 지역의 긴 시간 안에 배치됩니다. 전국사의 시대 이름을 배우는 동시에 그 시대가 원주의 어떤 자료로 남았는지 확인하는 구성입니다.

안내문에서 시대 이름만 밑줄 긋기보다 바로 뒤의 장소나 유물도 짝지어 적어보세요. '고려' 옆에 절터와 탁본을, '조선' 옆에 고문서를 놓으면 추상적인 연표가 자료와 연결됩니다. 같은 지역을 다루어도 시대마다 남아 있는 증거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이 읽기의 출발점이 됩니다. [5]

다시 돌아오는 시간

민속생활실은 사계절에 맞춘 세시풍속과 사람이 태어나 생을 마칠 때까지의 과정을 다룹니다. 박물관은 생업·의식주·공예뿐 아니라 원주의 방언과 설화, 민요를 찾아볼 수 있는 구성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왕조가 바뀌는 순서와 다른 종류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과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함께 놓입니다.

한 전시를 볼 때 모든 물건을 앞선 시대에서 뒤의 시대로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쓰는지, 누가 쓰는지, 어떤 일에 필요한지를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경과 생활 도구의 설명에서 계절을 나타내는 말과 생애의 단계를 나타내는 말을 따로 모아보면 전시가 시간을 엮는 방식이 드러납니다. [6]

답안지에서 행정 절차를 읽다

역사실의 '과지' 해설은 과거시험 답안지를 소개합니다. 응시자 정보를 적어 제출하고, 관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채점자가 이름을 보지 못하도록 봉해 돌려주었다는 설명입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서예의 모양뿐 아니라 사람을 선발하는 절차도 전한다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종이를 읽는 질문을 '무슨 글씨인가'에서 '어떤 순서로 사용했는가'로 바꾸어보세요. 작성한 사람, 확인한 기관, 읽게 되는 사람을 나누면 문서가 움직이는 경로가 생깁니다. 강원감영의 책방과 행정 업무를 읽은 뒤 이 자료로 이어가면, 건물 안에서 처리했을 법한 일을 구체적인 문서의 형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과지의 이력은 소장품 설명 범위 안에서 확인합니다. [5]

전시 순서를 나만의 질문으로 바꾸기

읽기 메모에 긴 연표 하나와 등근 원 하나를 그려보세요. 연표에는 시대가 바뀌며 등장한 자료를, 원에는 계절에 따라 돌아오는 일을 적습니다. 생애의 단계는 따로 작은 줄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배치를 그대로 복제하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한 시간의 종류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서나 생활 물건 한 점을 골라 두 도식 가운데 어디에 놓을지 생각해 봅니다. 한 물건이 여러 시간에 걸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와 일 년 중 언제 쓰였는지는 동시에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실을 모두 기억하려 애쓰기보다, 이런 질문 하나를 남기면 다음 자료를 읽을 자리가 마련됩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

1. 역사실의 시대 순서와 민속생활실의 계절 순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2. 과자의 글씨 외에 확인할 수 있는 사용 절차는 무엇인가요?
3. 한 물건에 제작 시대와 사용 계절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나요?

이 글에서 남기고 싶은 것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나의 질문을 적어보세요. 다시 찾아볼 자료의 번호도 함께 남깁니다.

참고 자료와 원문

단락 끝 번호에 해당하는 원문입니다. 링크에서 사진과 상세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자료의 이용조건은 각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원주시역사박물관 — 강원감영 둘러보기

https://whm.wonju.go.kr/whm/page/view.php/sub_07_02

[2] 원주시역사박물관 — 강원감영이란?

https://whm.wonju.go.kr/whm/page/view.php/sub_07_01

[3] 원주시 — 강원감영 선화당 보물 지정 예고(2021.11.01)

<https://wfmc.wonju.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145&integrDeptCode=&key=222&nttNo=379815&pageIndex=1291&searchCnd=SJ&searchCtgr=&searchKwd=>

[4] 원주시 — 강원감영지

<https://wfmc.wonju.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350&integrDeptCode=&key=4391&nttNo=318710&pageIndex=1&searchCnd=all&searchCtgr=&searchKwd=>

[5] 원주시역사박물관 — 역사실

https://whm.wonju.go.kr/whm/page/view.php/sub_02_01_01

[6] 원주시역사박물관 — 민속생활실

https://whm.wonju.go.kr/whm/page/view.php/sub_02_01_02

편집·이용 안내

글·질문 편집: 컬처스텝. 자료 확인일은 각 글에 표시했습니다. 소장 정보와 현재 전시는 다를 수 있으므로, 관람을 계획할 때에는 박물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목 글꼴: 제주명조체 · 제주특별자치도. Google Fonts의 SIL OFL 1.1 배포본을 문서에 포함했습니다. 본문 글꼴은 맑은 고딕입니다.

[제주명조 실제 배포본·라이선스](#)

[웹판 읽을거리: culturestep.kr/guides](https://culturestep.kr/guides)

읽은 뒤에 남기는 기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과 나의 감상을 나누어 적어보세요. 이 기록지는 본인이 보관하는 개인 기록이며 사이트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01 / 문과 업무

강원감영에서 어떤 문을 지나 어떤 일을 보았나요? 공간의 이름과 확인한 기능을 짚지어 적어보세요.

02 / 여러 겹의 시간

설치·중건·발굴·복원 가운데 사건 두 가지를 골라 날짜와 자료 출처를 적어보세요.

03 / 문서 한 장의 절차

과지는 누가 쓰고 누가 읽는 문서인가요? 역사실과 민속생활실의 시간을 비교해도 좋습니다.

기록일: _____ 더 읽고 싶은 주제: _____